

일반논문

한국 생태관광에 대한 녹색통치성 연구를 위한 소고

Green governmentality approaches to the study of ecotourism
in South Korea

최명애*

지난 20여 년간 생태관광은 한국 사회에서 환경 보전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도구로 부상했다. 그러나 생태관광에 대한 국내 사회과학계의 논의는 아직까지 생태관광 전략 수립과 평가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생태관광의 개념과 실제에 대한 비판적 사회과학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 논의를 활용해 한국 생태관광의 정치적 전략과 성격을 고찰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다. 녹색통치성 논의는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환경 분야로 확장해, 생태관광과 같은 환경 관리 장치를 특정한 ‘환경 주체(environmental subjects)’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정치적 통치(a form of governing)로 이해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한국 생태관광의 출현 및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서구-제3세계의 전형적 모델과 구별되는 한국 생태관광의 정치적·지리적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생태관광에 대한 주요 사회과학적 접근법(이해 당사자 이론, 정치생태학적 논의, 녹색통치성 논의)을 차례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녹색통치성 논의를 활용하기 위해, 이론적 토대가 되는 푸코의 권력과 통치성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생태관광의 통치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의 차원(aspect)과 축(axis)을 탐색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 생태관광의 출현과 작동 방식을 발전주의 국가에서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동과 관련지어 경로의존적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이 같은 분석을 위한 녹색통치성 논의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주요어: 생태관광, 녹색통치성, 생명정치, 발전주의 국가, 푸코

*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객원연구원(myungae.choi@gmail.com)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은 유례없이 높다.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은 ‘제3차 국가관광개발계획(2012~2021)’의 5대 관광 목표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태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생태관광인증제’를 실시하고, 제주에코투어 등 17건의 여행 상품과 숙박 시설을 ‘생태관광상품’으로 인증했다. 환경부는 경남 창녕 우포늪 등 전국 20곳을 2015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해 환경 보전과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생태관광을 새로운 지역 개발 방식으로 주목하면서, 전남 순천만, 전남 신안군 증도 등 지자체 주도로 개발된 생태관광지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에는 연구자, 환경 및 지역단체 활동가, 생태관광에 관심이 많은 지역 기반 여행업 종사자들이 ‘한국생태관광협회’를 결성하고, 생태관광 인식 증진 및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관광’이란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지 20여 년 만에 생태관광은 한국 사회에서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높은 정책적 관심에 비해, 국내 사회과학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는 생태관광을 달성해야 할 규범적 목표로 보고,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개발 전략, 관광객 및 지역주민 인식 조사, 생태관광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조중현·김용근, 2014). 이에 비해 생태관광의 개념과 실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한국 생태관광의 정치적 성격을 고찰하는 사회과학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사회과학에 존재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이론적 간극(theoretical gap)은 세계 생태관광연구에 존재하는 동아시아 간극(the East Asian gap), 즉 동아시아 사례 연구의 결핍과도 무관치 않다. 생태관광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소위 북반구(the global North)의 관광산업, 보전단체, 관광객과

남반구(the global South)의 관광지, 지역 공동체 사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교환에 주목하고, 중남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이른바 ‘제3세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한편 Weaver and Lawton (2007) 등이 지적하듯, 연간 국립공원 탐방객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름에도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의 생태관광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아직까지 미미한 형편이다(Weaver, 2002; Cater, 2006). Buckley et al.(2008) 등 최근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생태관광에서 일반적인 북반구-남반구 모델과 구별되는 독특한 거버넌스, 관광객 구성(예를 들어, 내국인 중심), 관광 자원(예를 들어, 지질 지형, 곤충) 등이 활용되는 것에 주목하고, 개별 국가적으로 특수하면서 지역적으로 보편적인 ‘동아시아 생태관광’ 형태와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Kerstetter et al., 2004; Buckley et al., 2008; Wen and Ximing, 2008; Lee et al., 2013).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한국 생태관광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생태관광 연구에 한국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동아시아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생태관광에 대한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생태관광을 특정한 ‘환경 주체’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정치의 장치로 보는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 논의에 주목하고, 이 논의가 한국 생태관광의 정치적 전략과 성격을 고찰하는 데 갖는 유용성을 검토한다. 먼저, 한국 생태관광의 출현 및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서구-제3세계의 전형적 모델과 구별되는 정치적·지리적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생태관광에 대한 주요 사회과학적 접근법(이해당사자 이론, 정치생태학적 논의, 녹색통치성 논의)을 차례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녹색통치성 논의를 활용하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되는 푸코의 권력과 통치성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생태관광의 통치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의 차원과 축을 탐색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 생태관광의 발생과 작동 방식을 발전주의 국가에서 후기 발전주의 국가¹⁾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동과 관련지어 경로의존적 맥락에서 이

해할 것을 제안하고, 이 같은 분석을 위한 녹색통치성 논의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2. 한국 생태관광의 발생과 특성

생태관광은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략으로 발달해왔다(Duffy, 2002; Honey, 2008; Fennell, 2015). Honey(2008)는 1990년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의 생태관광의 출현을 네 가지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설명한다. 첫째, 1970년대 이후 국제자연보전기금(IUCN),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 자연보전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에서 보호지역(protected area)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둘째, 무상 원조의 한계에 부딪친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기구들은 새로운 방식의 제3세계 원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셋째, 만성 외채 위기에 시달리던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 획득 창구가 필요했다. 넷째, 휴양지 중심의 기존 대중관광에 싫증을 느낀 미국, 유럽의 관광객들이 새로운 관광 대상으로 자연을 주목했고, 이에 따라 관광업계의 시장 다각화가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역사적 상황들이 결합해 코스타리카,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지의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트레킹, 사파리 같은 새로운 자연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대형 관광사업자에 의한 고급 패키지여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국제기구, NGO,

-
- 1) 본 논문은 발전주의 국가 체제에서 형성된 제도적·담론적 프레임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를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 이해하는 박배균(2006) 등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한편 장하준(1998), Pirie(2005) 등은 한국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가 소멸하고 ‘탈발전주의 국가’로서 신자유주의 국가로 전환했다고 본다. 또 Jessop(2005) 등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자본주의 근대화가 갖는 보편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발전주의 국가’ 대신 ‘리스트주의적 근로 국민국가’로 개념화한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사회기반 생태관광(ecotourism, CBET)도 등장했다. CBET는 관광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함으로써 제3세계 농어촌의 빈곤을 퇴치하고, 주민주도형(empowerment)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Scheyvens 1998; Kiss 2004; 엄은희 2016).

이렇게 출현한 생태관광은 “자연에 기반을 둔(nature-based),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는(sustainably managed), 환경적이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인 형태의 관광(envIRONMENTALLY and culturally educative forms of tourism)”으로 개념화된다(Blamey, 2001: 7~17; Ceballos-Lascurain, 1996; Wearing and Neil, 2009; 조중현·김용근, 2014).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자연에서 벌어지는 모든 관광’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는 교육적 자연관광’까지 다양한 형태의 관광이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은 도입기(1992~1998), 확산기(2002년 전후), 제도화(2008년~현재)의 세 단계를 거쳐 발달해왔다.²⁾ 생태관광의 개념은 1990년대 초·중반 국내외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관광 및 환경 연구자, 환경 NGO와 지역단체 활동가에 의해 유입되고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했다.³⁾ 국내적으로는, 1980년대 공해 문제를 통해 향상된 환경 인식이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시화호 오염 사건 등을 계기로 자연 보전 영역으로 확산됐다(Ku, 2009). 또, 농가 및 농업 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게

2) 이 분석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집한 관련 문헌 자료와 주요 관계자 심층면접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김○○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서울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제○○ 전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강○○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박사(한국생태관광협회 이사), 강○○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심○○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과학 담당자, 백○○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장, 김○○ 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등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국내 생태관광 관계자 19명이다.

3) ‘생태관광’이란 용어는 1992년 교통개발연구원 소식지 《교통정보》에 실린 이광희·변재진의 시론 「환경보전과 생태관광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국립연구기관 간행물, 학술지 등을 통해 1990년대 초·중반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끔 한 관광농업법이 1988년 제정되면서 농가 소득 창출 전략으로서의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1992년 리우 회담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제안되고 국내에 유입됐다. 서울대 산림자원학과와 환경대학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 휴양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고, 강화도 시민연대와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마을 만들기에 대한 실천적 실험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참여, 국내 연구자와 활동가와의 협력을 통해 생태관광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을 잇달아 마련했다. 생물권보전사업(Man and Biosphere Program)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보전 사업 참여를 모색하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에는 생태관광이 “환경과 지역 경제의 조화”(심숙경, 1995: 77)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여겨졌던 것이다. 1998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강화도 시민연대 주최로 강화도에서 개최된 ‘자연포럼’은 국내 첫 생태관광 컨퍼런스로 연구자와 활동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중반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관광사업자로 확산된다. 2002년 세계 생태관광의 해를 맞아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의 생태관광 발전 전략 모색’ 포럼에는 연구자와 활동가 외에도 환경부·문화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 지자체 관광과 공무원, 지역 관광사업자, 호주 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은 생태관광의 목적을 환경 보전, 지역사회 발전, 환경 교육으로 규정하고 생태관광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각 사회 세력의 협력을 강조하는 『생태관광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후 2000년대를 거치며 등산과 낚시 중심이던 자연관광의 형태가 갯벌체험, 휴양림, 팜스테이, 야생화·숲 기행 등으로 다양화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자연관광 프로그램이 소규모 지역사업자에 의해 환경 교육이나 보전 가이드라인 없이 운영되고, 동호회 중심의 생태기행이 지역 공동체와 유리된 채 이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연 관광이 생태관광의 원래 취지에 부응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태관광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관광을 녹색성장의 한 전략으로 여기고 장려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 ‘한국형 생태관광’, ‘저탄소 녹색관광’ 등의 이름으로 생태관광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잇달아 개최되고,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복수의 정부 부처가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생태관광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생태관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남 신안군, 울산시 남구 등 생태관광을 지역 발전과 브랜드화 전략으로 택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주도의 생태관광지 개발 사업도 활발해진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생태관광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역사적·사회적 상황이 결합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 하향식(top-down) 보호지역 관리의 한계에 부딪친 정부 보전 부처(예를 들어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환경 운동의 영역을 반공해 운동 이상으로 확장할 필요를 느낀 환경 NGO에게 생태관광은 보전 정책 및 환경 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졌다. 보호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보전의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돌려줌으로써, 생태관광은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을 막고 오히려 이들을 ‘보전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유용한 정책 도구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생태관광을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중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보전 감수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런 이유에서 녹색연합 등 환경 NGO들은 지자체로부터 갯벌교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생태관광 사업에 교육자, 운영자 등으로 적극 참여해왔다.

둘째, 농림수산식품부나 행정자치부 등의 중앙 부처와 지자체, 지역단체는 생태관광을 농어촌 개발의 새로운 전략으로 환영했다. 이들은 심화되는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낙후된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관광을 이용한 농어촌 개발 전략 마련에 부심해왔다. 생태관광은 기존의 농가 체험에 인근의 보호지역과 생태 교육을 접목시킴으로써 기존의 팜스테이, 농어촌체험마을 등을 잇는 새로운 농

어촌 관광의 브랜드로 떠올랐다.

셋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 주도형 보전과 지역 개발이 강조되면서, 지역 주민이 생태관광의 주체로 부상했다. 한편, 국내 대형 관광사업자의 생태관광 참여는 지금까지도 미미한 형편이다. 이는 내국인의 주말 여행으로 이뤄지는 한국 생태관광의 전형적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 여행 정보가 인터넷 및 지자체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보호지역(국립공원 등) 및 주요 관광 시설(생태체험관 등) 관리를 맡으면서, 대부분의 생태관광지에서 별도의 유료 가이드나 고가의 입장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 같은 형태는 외국인 관광객이 중장기 체류하며, 언어 및 문화 문제 때문에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고 고가의 입장료를 내며 보호지역을 관광하는 제3세계 생태관광과 크게 다르다. 항공, 숙박, 가이드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대형 관광사업자에게 국내 생태관광은 매력적인 시장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를 대신해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숙박, 식당, 여행사 운영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이해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국내 여행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관광 대상을 찾는 관광객의 요구가 증가했다. 국내 여행레저산업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휴가 일수가 길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발달했다.⁴⁾ 국내 관광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트레킹(제주 올레 등), 갯벌체험관광, DMZ 투어, 야생동물관찰관광(순천만 철새 탐조 등) 등이 생태관광의 일환으로 실시되면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자연 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자연 보전’에 대한 요구가 관광을 통한 ‘농어촌 경제 발전’의 필요성과 맞물리면서 출현하고 발달해왔다. 이 같은 역사적·사회적 변화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은 ‘환경보전’, ‘경제발전’, ‘지역참여’, ‘환경교육’의 원칙을 견지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 관광으로 특징지어진다. 형태면에서는,

4) 문화관광부 관광통계(2015)에 따르면, 1993년 평균 7.7일이던 국민 연평균 휴가 일수는 2007년 11.94일로 증가했다.

대형 관광사업자가 주도하는 고급 패키지 관광보다는 지방 정부 및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환경 NGO 등이 지원하는 CBET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광을 통한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농가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1980~1990년대 농촌관광과 구별된다(Lane, 1994).

개념과 원칙 측면에서 국내 생태관광은 앞서 기술한 북반구-남반구의 주류 생태관광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리적 스케일과 정치적 구조면에서 우리나라 생태관광은 중남미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사례와 구별된다. 주류 생태관광은 관광객과 자본이 미국·유럽 등 서구와 제3세계 사이를 이동하는 글로벌 스케일(global scale)로 이뤄진다(Honey 2008). 또 Duffy(2008)가 지적하듯, 국제 보전 NGO, 원조 기구, 서구 관광사업자 등의 글로벌 행위자와 산업계가 주요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관광 프로그램인 사파리, 보호지역 트레킹, 래프팅 등은 대형 관광사업자의 주도로 이뤄진다. CBET의 경우 산업계의 참여는 미미하지만 원조기구, 국제 NGO 등 제1세계 행위자의 주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한국의 생태관광에서 인력과 자본은 국내, 즉 국가 스케일(national scale)에서 움직인다.⁵⁾ 또 글로벌 행위자와 산업계 대신,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 NGO, 지역 주민 및 공동체 등 국내 행위자가 주요 이해당사자로 활동한다. 지역 주민 및 공동체는 이윤을 추구하지만 생태관광을 통해 축적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광사업자, 즉 산업계와 구분된다. 또, 정부 및 NGO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생태관광에 필요한 전략, 자원, 지식 등을 공공 영역에서 지원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생태관광은 ‘국내’의 ‘공공’ 영역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전형적 모델과 구별되는 한국 생태관광의 특징은 생태관광이 배

5) 전통적 생태관광과 한국 생태관광의 스케일 차이는 관광객과 자본의 이동에 초점을 맞췄을 때 유효하다. 생태관광에서 발생하는 이동을 지식과 전문가로 확장하면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에서도 서구, 일본, 한국을 잇는 다국가 간 교환(multilateral transactions)이 관찰된다(최명애, 2016).

대된 한국 사회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필자는 다양한 맥락 가운데 특히 발전주의 국가에서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변동과 관련지어 생태관광의 출현 및 발달을 사유해 보고자 한다. 국가 주도형 발전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1990년대 초반 급속한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사회 세력은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복지 문제, 경제 불평등, 환경 문제 등 발전주의 체제하에서 야기된 다양한 정치·사회·환경 문제를 개혁하려고 해왔다(최장집, 2002; Kim, 2006; Doucette, 2009; Song, 2009). 그러나 국가 주도형 신자유주의 개혁의 예에서 보듯, 사회의 많은 영역에 여전히 발전주의 국가의 제도적·문화적 유산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은 자연 보전의 필요성, 지역 주도형 개발의 중요성, 레저 수요의 증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현했다. 이 같은 역사적 조건들은 과도한 자연 이용, 정부 주도형 개발, 레저와 휴가에 대한 사회적 억압(조광익, 2005) 등 발전주의 국가의 경험에 대한 반성 및 변화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생태관광을 한국 사회의 인간-자연 관계와 관련된 개혁 지향적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로 보고, 이의 출현과 발달을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의 사회 변화와 연계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생태관광을 이해하는 데서 경로의존적 분석이 유용함을 시사한다.

3. 생태관광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법

생태관광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관광학·행정학·지리학·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뤄져왔다.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이해당사자 이론에 기반을 두고 생태관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인식 조사, 평가 지표 개발 등에 주력해왔다. 최근 지리학과 문화인류학에서는 보전과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생태관광의 개념과 실천 가능성을

문제시하고, 정치경제학 논의와 통치성 이론 등을 활용해 생태관광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이해당사자 이론(stakeholder theory)과 이를 활용한 국내 연구 경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정치생태학적 접근(political ecology analysis)과 녹색통치성 접근(green governmentality analysis)을 차례로 검토한다.

1) 이해당사자 이론

일반적인 생태관광 연구에서 지역주민, NGO, 산업계 등 생태관광의 주요 구성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로 파악된다. 지역 주민과 산업계는 보호지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NGO는 보전 활동 확대를 통해 발생하는 정치적 이익 때문에 관광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생태관광은 경제적 발전과 보전 확대를 매개하는 도구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다(Child, 1996; Scheyvens, 1999; Mbaiwa, 2003). 대표적 연구자인 Honey(2008)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가 사파리 관광을 생태관광의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는데, 이 같은 모델이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유사한 사례의 확산을 통해 보호지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태관광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및 지역 주민 철거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인지하지만, 생태관광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환경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보고 현재의 생태관광 전략을 지지한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론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은 생태관광을 통해 야기되는 정치경제적·환경적 문제를 불가피한 외부 효과로 여기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연구는 생태관광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략, 이해당사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환경적·사회문화적·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Weaver and Lawton, 2007).

이해당사자론에 기반을 두어 최적의 생태관광 전략을 모색하는 경향은 국내 연구에서도 주류를 이룬다. 조중현·김용근(2014)은 국내 생태관광 연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가 해외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의 개념, 원칙, 특성 등을 소개하는 연구다(김성일·박석희, 2001; 최정수, 2003). 둘째, 생태관광의 전략 개발에 대한 연구로, 관광객 성향 및 태도 분석, 지역 주민 인식 조사, 지역 맞춤형 개발 계획 수립 등을 다룬다(정현주, 2006; 유영준·이성각, 2016). 강미희(1999)의 연구는 생태관광에 대한 국내 첫 본격 연구 중 하나로, 국립공원 관광객 조사를 통해 기존 자연관광객과 여행 동기 및 태도 면에서 구분되는 생태관광객의 등장을 밝혀냈다. 셋째, 생태관광지를 대상으로 현행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연구도 늘어나는 추세다(오정준, 2003; 이재혁·이희연, 2012). 엄은희(2016)의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CBET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는 보기 드문 해외 사례 연구로, 국내 생태관광 사례 연구의 지평을 제3세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Blamey(2001: 6)가 지적하듯, 지난 30여 년간 생태관광 연구와 실천이 주로 이해당사자론에 입각해 이뤄지면서, 학문적 논의에서나 실제 사례에서 생태관광은 당연히 달성해야 할 ‘규범적’ 위치를 갖게 됐다. Duffy(2002; 2008) 등의 비판적 정치생태학자들은 보전과 발전을 동시 달성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하며, 그 같은 형태의 생태관광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들은 대신 현실의 생태관광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생태관광의 정치학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2) 정치생태학적 논의

최근 정치생태학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중남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의 정치경제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Duffy, 2002; Vivanco and Gordon, 2006; Duffy and Moore, 2010;

Büscher and Davidov, 2014). 이 중 자본이 자연을 상품화해 새로운 축적을 도모한다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 of nature)’ 논의(Castree, 2008a; 2008b; 황진태·박배균, 2013)를 활용해, 생태관광을 ‘보전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 conservation)’로 이론화한 Brockington and Duffy(2011)의 연구가 특히 주목된다. McCarthy and Prudham(2004)이 요약하듯,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에 대한 반감, 시장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 대한 신뢰,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를 통한 자본과 시민의 긴밀한 관계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구조와 작동 원리가 생태관광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생태관광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rolled-up)되고, 서구 관광사업자와 국제기구, 지역 공동체가 주 행위자로 참여한다는 데 주목한다. 즉, 생태관광이 탈중앙적(decentralized)이면서 스케일적으로 글로벌-로컬로 양극화된(polarized) 거버넌스를 통해 작동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고, 보전이 서구의 관광사업자, 즉 시장에 의한 자율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또, 과거 국가가 맡았던 자연 보전과 경제 발전의 책임과 역할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한다. Brockington and Duffy는 결국 생태관광이 보전의 상품화와 시장화를 통해 새로운 축적을 가능케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기제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정치생태학자들은 이 같은 방식의 생태관광이 야기하는 북반구-남반구 간의 정치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한다. 프랜차이즈 호텔, 대형 여행사 등 서구 관광사업자가 남반구의 생태관광 사업을 주도하면서, 생태관광의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남지 않고 북미와 유럽의 관광 산업계로 새어나간다는(leakage) 것이다(Mowforth and Munt, 2008). CBET의 경우에도, 서구 보전 NGO 등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 개발 계획과 관광 이익의 환원 방식(예를 들어 학교 및 병원 건설)을 결정하면서, 실제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요구가 생태관광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Butcher, 2007). Adams and Mulligan(2012) 등은 생태관광의 인력·자본·지식의 이동이 식민지 경험을 통해 형성된 북반구-남반구 관계망을 통해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생태관광이 연장된 식민지 관계(prolonged colonial relations)를 활용해 글로벌 정치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Lorimer, 2010). 이런 측면에서 Duffy(2008)는 마다가스카르 사례 연구에서, 생태관광이 “[스위스] 관광객과 국제단체에 의한 새로운 식민주의”로 기능한다면서, “남반구의 경제를 세계 시장의 제물로 올리는 효과적 도구”(2008: 341)라고 거세게 비판한다.

3) 녹색통치성 논의

최근 푸코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통치의 한 형태(a form of governing)’로 보는 접근법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정치생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생태관광의 장밋빛 전망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푸코의 권력과 통치성 이론을 발전시켜 생태관광을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생명정치의 장치로 이론화한다. 푸코(Foucault, 1978; 2003; 2009)는 권력을 권위적 개인이나 집단, 국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행위자들의 복잡한 연결망에 부여되고 유동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그는 특히 권력의 생산성(productivity), 즉 담론·몸·제도 등의 사회 현상을 만들어 내는 능력에 주목하고, 권력의 작동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과 생명 관리 방식(new forms of life and ways of living)에 관심을 보였다. 푸코는 통치(government)를 국가의 개인에 대한 지배라는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품행의 인도(the conduct of conduct)”(Gordon, 1991: 2), 다시 말해, “사람 개인과 전체의 품행을 형성, 지도하거나 그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활동”(심성보 외 옮김, 2014: 15)이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 통치성(governmentality)이란 다양한 개념적·물질적 장치들을 이용해 개인과 인구의 품행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통치 이성—또는 합리성—및 통치술의 총체를 가리킨다(Rabinow and Rose, 2006).

통치성 이론은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근대 자유주의 사회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⁶⁾ 푸코주의 연구자들은 통치성 이

론을 활용해 신자유주의(Lemke, 2001; Dean, 2010), 근대 국가(Scott, 1998; Mitchell, 2002; Legg, 2008) 등의 새로운 사회 현상의 출현, 발전, 변화를 분석하면서, 새로운 통치 양식(신자유주의 등)이 다양한 사회 세력(국가, 자본, 시민사회, 비인간 행위자 등), 물질, 담론, 실천 등의 배열과 재배열을 통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특히 통치의 작동 방식, 즉 다양한 지식, 테크놀로지, 주체화 등을 통해 통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Agrawal(2005a; 2005b) 등은 통치성 분석을 환경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환경 운동(Luke, 1999), 기후변화(Oels, 2005; Bäckstrand and Löwbrand, 2006), 탄소 배출권 거래(Lovell et al., 2009),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Li, 2007; Dressler, 2014) 같은 새로운 환경 관련 사회 현상을 ‘환경 통치’로 이론화하는 ‘녹색통치성’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에게 환경은 사회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물적 조건이 아니라, 지식·담론·실천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권력의 공간(a site of power)으로 새롭게 규정된다. 이들 연구자들은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환경 관리 방식(배출권 거래, 생태관광 등이 우리의 자연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환경 통치의 장치로 활용된다고 주장한다.

Rutherford(2011) 등은 녹색통치성 논의를 생태관광으로 가져와 다양한 지식, 통치 기술, 주체화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통치가 이뤄지는 방식을 분석한다(West, 2006; 2008; Fletcher, 2009; 2014). Rutherford(2011)는 디즈니 테마파크 <동물의 왕국> 사례 연구에서, 자연이 특정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되고 전시되는 데 주목한다. 이 관광에서 자연은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보전 기금 기부와 윤리적 소비(보전 활동을 펼치는 디즈니에서의 소비 행위)를 통해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보전-소비를 매개하는 디즈니는 ‘보전 주체’로 만들어지고, 관광객은 소비를 통해 지구를 구하는 ‘소비자-시민(consumer-citizen) 주체’로 만들어진다. 결국 ‘소

6) 통치성 이론에 대한 요연한 개요로는 Rose et al.(2006), Rutherford(2007)을 참고하라.

비'가 관광객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되고 옹호되는 것이다. Rutherford는 녹색통치성 논의를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와 결합해, 디즈니와 같은 북미 생태관광이 소비 주체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축적을 가능케 하는 '신자유주의 녹색 통치성(neoliberal governmentality)'의 새로운 장치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예로, Fletcher(2014)는 칠레에서 벌어지는 북미 관광객들의 계곡 래프팅을 분석하고, 래프팅이 '야생(wilderness)'이나 '모험(adventure)' 같은 북미와 유럽의 맥락특수적인 자연관을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칠레에 확산하고 정상화(normalizing)하는 문화적 통치성(cultural governmentality)의 장치로 활용된다고 지적한다.

통치성 분석은 맥락의존적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하지만, 분석의 기준과 해석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푸코 및 푸코주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분석 결과를 사회 현상에 대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이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른 분석과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Foucault, 1980b). 또, 이들은 사회 현상의 분석을 통해 보편적 법칙을 도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동일한 사회 현상의 새로운 정치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4) 요약: 녹색통치성 논의의 유용성

본 절에서 검토한 사회과학적 접근법 가운데 정치생태학적 논의와 녹색통치성 논의는 그간 이해당사자 이론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한국 생태관광에 비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그런데 앞서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생태관광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국가 스케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북반구-남반구에서 이뤄지는 전형적 생태관광 모델과 크게 다르다. 이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지는 한국 생태관광의 형태와 정치학은 연장된 식민지 관계를 이용해 새로운 축적을 도모하는 '보전의 신자유주의화'와 동일할 수는 없다. 한국

생태관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정치생태학적 논의에서 사용하는 정치경제적·신식민주의적(post-colonial) 분석을 한국 사례 연구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방법론적 수정과 천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경제학 분석의 스케일을 국가-지역 수준으로 좁혀, 북반구-남반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 불평등이 도시와 농촌이라는 스케일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고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 생태관광의 특수성을 중요한 분석적 차원으로 간주하고, 녹색통치성 논의가 한국 생태관광의 정치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사회 현상의 ‘보편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면, 푸코주의 분석은 사회 현상을 ‘경로의존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푸코주의 연구자들에게 (생태관광과 같은) 사회 현상은 보편적 역사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의 특수한 작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적 성취물(relational achievement)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은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지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하고, 미시적 차원에서의 권력 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의 발생과 변동을 설명하고자 한다(Dean, 2010). 권력 관계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맥락에 배태돼 작동한다. 생태관광의 거버넌스, 권력 관계, 권력의 작동방식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통치 양식, 즉 통치성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생태관광을 한국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동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4절에서는 녹색통치성 논의를 활용한 한국 생태관광 분석을 돕기 위해 통치성 분석의 주요 이론과 도구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 사례 분석에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짚어 본다.

4. 녹색통치성 논의와 한국 생태관광 분석

푸코의 권력과 통치성 이론은 16~18세기 서유럽에서 발생한 역사적 변화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Foucault, 1978; 2003; 2009). 16세기까지 군주의 통치는 공개 처형, 처벌과 같은 ‘사법 메커니즘(sovareign mechanism)’을 통해 이뤄졌다. 이후 200여 년에 걸쳐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민 세력의 부상, 인구 폭발 등의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통치 양식에 변화가 생겨났다. 근대 자유주의 통치는 그 대상을 ‘인구(population)’로, 목적을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것(to take a life or let live)’에서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는 것(to make a life or let die)’으로 삼았다. 통치의 기술로 감옥이나 학교 등의 제도를 통해 개인의 ‘육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단련시키는 ‘규율 메커니즘(disciplinary mechanism)’이 추가됐고, 인구가 따라야 할 특정 ‘규범(norm)’을 설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의 안전을 구실로 수정해나가는 ‘조절 메커니즘(regulatory mechanism)’이 등장했다. 푸코는 이처럼 군주의 통치와 구분되는 근대 자유주의 통치의 이성(mentality)과 기술(technologies)에 주목하고, 이를 ‘통치성’이라고 불렀다.

Rose(1996) 등은 근대 서유럽의 역사적 변화에 기반을 둔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인구 및 자신(self)에 대한 통치가 이뤄지는 조직적인 방식에 대한 연구”(Dean, 2010: 28)로 발전시켰다(Legg, 2005; Rose, 2007; 심성보 외 옮김, 2014). 이들에 따르면, 통치는 자신과 타인의 품행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실천의 체제(regime of practices)’를 통해 이뤄진다. 이 체제의 형성과 운영에는 통치 대상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견인하는 ‘프로그램(program)’, 통치 대상과 프로그램을 매개하는 ‘개입의 기술(technologies of intervention)’이 요구된다. 예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통치를 위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과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환경과 보전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및 전시 기법, 관광 가이드 활용 등을 통한 지역 주민 참여 전략 등 다양한 ‘개입의 기술’이 요구된다.

1990년대 Rose 등의 영국 ‘통치성 학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통치성 연구는 최근 국내 사회과학계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통치성을 다룬 푸코의 후기 저작들과 함께 『푸코 효과』(심성보 외 옮김, 2014) 등의 핵심 저작이 최근 잇달아 번역 출간됐고,⁷⁾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통치성 이론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한국 신자유주의 분석에 갖는 방법론적 유용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서동진, 2009a; 진태원, 2012; 김환석, 2013). 또, 자기계발(서동진, 2009b), 다문화 사회(Jun, 2011), 자살과 우울증(김환석, 2015), 메르스 사태(최병두, 2015), 새마을운동(Sonn and Gimm 2013) 등 권력이 생명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주체화 과정을 분석한 사례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생태관광에 대한 녹색통치성 연구는 그간 신자유주의와 의료에 집중해온 국내 통치성 연구의 영역을 환경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국내 통치성 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 생태관광의 통치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몇 가지 분석의 차원(aspect)과 분석 축(axis)을 검토한다. 본 절의 분석의 차원은 사회 현상의 체계적인 통치성 분석을 위해 Rabinow and Rose(2006)가 제안한 네 가지 분석 영역, 즉 “진리 담론(truth discourses), 권위 있는 행위 주체(an array of authorities), 개입의 전략(strategies of intervention), 주체화의 형태(modes of subjectification)”(2006: 165)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가지 분석 축은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동과 관련지어 도출됐다.

1) 분석의 차원들

(1) 이질적 행위자들의 권력관계

푸코의 권력과 통치에 대한 재정의에 기반을 두고, 통치성 연구자들은

7) 푸코가 1975년부터 1982년까지 Collège de France에서 실시한 강의록으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김상운 옮김, 2015), 『안전, 영토, 인구』(오토르망 옮김, 2011), 『주체의 해석학』(심세광 옮김, 2007) 세 권이 대표적이다.

통치가 군주와 같은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라 이질적 행위자들의 집합(heterogeneous assemblages) — 또는 배치(dispositif)나 장치들(apparatuses) — 에 의해 이뤄짐을 강조한다. 푸코는 배치를 “담론, 제도, 건축물, 조절 결정, 법, 행정 수단, 과학적 진술, 철학적·도덕적·박애적 제안 등으로 이뤄진 전적으로 이질적인 집합”(Foucault, 1980a: 194)이라고 규정한다. 즉, 통치가 권위적 행위 주체(예를 들어 다양한 층위의 정부, 기업, 과학자, 국제기구, 환경 NGO)를 포함,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의 다양한 개념적·물질적 장치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질적 행위자의 집합을 강조하는 이 같은 관점은 통치의 권력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한다. 전통적 관점에서 권력관계는 단일한 통치자(예를 들어 왕)의 ‘억압’과 피통치자(예를 들어 국민)의 ‘순응 또는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된다. 그런데 통치의 주체가 복수의 행위자로 확장되면서, 이들 사이에 다각적인 상호 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권력관계가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를 뛰어넘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북반구·남반구 사례에 기반을 둔 전통적 분석에서 생태관광은 통상 탈중앙적, 초국가적(transnational) 거버넌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가 후퇴한 가운데, 초국가적 기구 및 자본과 지역 공동체로 행위자가 양극화되면서, 생태관광의 권력 관계는 이해당사자 관점에서는 ‘협치’(Honey, 2008), 정치생태학적 반박에서는 ‘억압’과 ‘저항’(Duffy, 2008)이라는 다소 정형화된 형태로 설명된다.

한편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거버넌스 구조와 권력관계는 이 같은 일반적인 모델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역시 중앙 및 지역정부, NGO, 지역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탈중앙적 거버넌스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복수의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 주민 주도형 개발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지역 주민 및 공동체가 생태관광의 계획·운영 주체로 강조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 및 지역 정부가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환경 NGO와 연구자들이 정부 및 지역 공동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생태관광의 기획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슬로시티 깃별 생태관광을 실시하는 전남 신안군 증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주민 여행사’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슬로시티 자치위원회’가 생태관광의 주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생태관광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신안군의 예산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관광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환경 NGO 출신 활동가들이 맡고 있다. 이들 활동가들은 군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민 여행사 및 슬로시티 자치위원회의 직원으로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거버넌스는 ‘주민 주도형’과 ‘관 주도형’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권력 관계는 기존의 억압-저항의 이분법보다 훨씬 복잡하다. 복수의 행위자와 그들의 다각적 상호작용을 섬세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하는 통치성 연구는 한국 사례처럼 비전형적인 생태관광의 거버넌스와 권력관계를 분석할 때 특히 유용할 것이다.

(2) 주체의 형성

주체화, 또는 주체의 형성(subject formations)은 자신과 타인을 단지 통치의 객체—즉, 대상—가 아니라, 통치 이성을 내면화하고 그에 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변모시키는 통치 기술을 가리킨다. 특히 푸코(Foucault, 2000)는 후기 저작에서 자신의 몸·사고·품행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도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통치의 주체로 변모시키는 자기 주체화, 즉 ‘자기 기술(technologies of the self)’에 주목한다. 자기 주체화는 타인에 대한 주체화와 두 가지 면에서 구분된다. 첫째, 여기서 자기는 ‘개선의 의지(will to improve)’를 갖고, 자신의 삶의 형태와 방식을 더 나은(virtuous)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둘째, 이들은 통치에 따르거나 혹은 따르지 않을 ‘자유(freedom)’가 있는 존재로, 이들의 자기 주체화는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Rose(1996)와 서동진(2009b)은 자기 기술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의 예로 신자유주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끊임

임없이 스스로를 계발하는 ‘자기 계발의 주체(self-propelled entrepreneurs)’를 들었다.

Agrawal(2005a; 2005b) 등 녹색통치성 연구자들은 환경 통치에서 활용되는 자기 주체화 기술과 주체의 형태에 주목하고, 이를 ‘환경 주체(environmental subjects)’로 개념화한다(Luke, 1999; Tsing, 2005; Cepek, 2011). 환경 주체는 “환경을 돌보려는 사람들(people who care about the environment)”(Agrawal, 2005b: 162), 다시 말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제한하면서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생태 시민을 일컫는다. 환경 주체의 형성에는 인센티브, 처벌, 참여 기제 등을 활용하는 제도적 주체화 기술뿐 아니라, 보전 가치를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바꿔 나가는 자기 주체화의 기술도 함께 사용된다(Agrawal, 2005a). Rutherford(2011)는 생태관광을 통해 형성되는 환경 주체로 녹색 소비로 자연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비자-시민(consumer-citizen)’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소비자-시민 주체 형성에서 보듯 생태관광의 통치가 보전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통해 축적을 계속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포섭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환경 주체는 자본주의 환경 통치에 전적으로 저항하거나, 전적으로 포섭되는 존재라기보다는, 통치 이성 및 전략과의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체로 볼 수 있다.

생태관광의 분석 축을 신자유주의 밖으로 확장시키면, 생태관광을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환경 주체의 형태와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지역 자연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농업 방식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환경 시민’ 주체로서의 지역 주민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제주 올레처럼 ‘느림’의 시간성이 강조되는 생태관광에서는, ‘빠름’에 경도된 일상의 시간성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삶의 속도를 재구성하는 ‘느림의 주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이 같은 환경 주체의 정치적 성격을 맥락의존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느림의 주체의 등장은 발전주의 국가 체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된 ‘빠름’의 시간성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느낌의 경험을 치유 과정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상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 즉 자기 계발의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느낌의 주체는 발전주의 국가의 관성이 남아있는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한국 사회의 현재적 맥락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포섭되는 존재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3) 게임의 기술

푸코(Foucault, 2009)는 게임의 기술을 크게 사법, 규율, 조절 기술로 구분하고, 이들이 단계적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면서 현대 통치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⁸⁾ 최근 Philo(2012) 등 푸코주의 지리학자들은 통치를 위한 게임이 담론 등의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감정·정서·기분과 같은 비인지적 영역에서도 이뤄진다고 보고, 비인지적 통치의 분석을 위해 ‘감응 기술(affective technologies)’에 주목한다(Thrift, 2004; Adey, 2008; Anderson, 2012; McCormack, 2015). ‘감응’, ‘정동’ 등으로 번역되는 ‘Affect’는 스피노자와 들뢰즈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몸과 몸을 연계시키는 능력(the capacity to relate to different bodies)”(Anderson, 2009: 78)을 가리킨다. 특정한 감정(emotion)이나 기분(feeling)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 및 비인간 몸, 즉 물질적 실체 사이에 감응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Pile, 2010). 감응 기술을 활용한 게임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통치에 활용되거나 통치를 통해 발생하는 음악, 리듬, 기분, 신체적 반응 등의 비인지적 요소에 주목한다. Carter and McCormack(2006)은 감응을 이용한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 9/11 직후 미국에서 제작된 전쟁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을 분석한다. 이들은 치열한 전투 장면, 웅장한 음악, 애국주의 내러티브 등을 통해 스크린과 관객의 몸—소름이 돌거나

8) 예컨대, 쓰레기 투기 문제의 경우, 불법 투기에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 기술, 특정 위치에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육체를 훈련하는 규율 기술, 쓰레기 투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교정되어야 할 비정상적 행위로 만드는 조절 기술이 두루 활용된다.

긴장하게 된 — 이 ‘전쟁의 공포’라는 감응 기제(affective register)로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전쟁의 정당화라는 정치적 효과가 달성된다고 설명한다.

생태관광에서도 다양한 사법·규율·조절·감응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내러티브, 전시 기법, 참여 장치, 인센티브와 처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담론적 통치와 함께, 특정한 육체적 반응(소름 같은), 감정이나 기분(서스펜스 같은)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감응적 통치에도 관심을 기울인다(Cloke and Perkins, 1998; Cater and Cloke, 2007; Lorimer, 2010). 하지만 기존의 연구가 ‘야생’, ‘모험’ 등 서구 문화권에 바탕을 둔 감응의 형태와 기제에 집중되면서, 비서구 생태관광의 감응 통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생태관광에서 활용되는 감응 기술에 대한 연구는 이 같은 이론적·경험적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올레를 예로 들면, 걷기의 리듬, 피로한 다리, 수평적 풍경, 완만한 구릉성 산지 지형, 일상에서의 탈출과 치유를 원하는 개인의 정서 등의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 물질적 실체들이 ‘힐링’이라는 감응 기제를 통해 연결된다. 이를 통해 올레 걷기가 ‘느림’의 경험을 통한 ‘치유’로 재구성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지배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으로 읽힐 수 있게 된다. 느림과 힐링은 전 지구적으로 조응하면서도 특히 급속한 사회 변동을 겪은 한국 및 동아시아의 생태관광에서 특히 부각되는 감응의 한 형태로 이론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생명정치

푸코(Foucault, 1978)는 권력이 몸, 즉 인간의 생물학적인 요소에 행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명권력(biopower)’과 ‘생명정치(biopolitics)’라는 개념을 발달시켰다. 그는 생명권력이 군주의 생사여탈권처럼 ‘죽게 하는 것(to take a life)’과 근대 국가의 인구 관리처럼 ‘살게 하는 것(to make a life)’의 두 가지 형태로 행사될 수 있다고 봤다. 기존 연구에서는 생명정

치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돼왔는데, 푸코(Foucault, 2003)가 예로 든 나치즘의 경우처럼 특정 인구 집단을 구별하고 억압하고 제거하는, ‘배제(exclusion)’와 ‘죽음(death)’의 정치로 여겨져왔다(Agamben, 1998; Lemke, 2011).

그러나 Rose(2007) 등 최근의 통치성 연구자들은 푸코가 근대 자유주의 통치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정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생명정치의 긍정적(affirmative) 측면을 강조한다(Anderson, 2012; Rutherford and Rutherford, 2013). 이 새로운 통치 양식에서 “인구의 건강, 행복, 부, 복지가 통치의 핵심”(Dean 2010: 34)을 이루면서, 생명정치가 인구를 보호하고 양성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Srinivasan (2014) 등은 생명정치의 대상을 동물 등 비인간 존재로 확장시키고, 생명정치를 ‘생명에 대한 배려(care of life)’로 새롭게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Hannah, 2011; Lorimer and Driessen, 2013). 이들은 특히 비인간 존재가 이질적 행위자의 일부로 생명정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생명권력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생명정치를 배제와 죽음이 아니라, ‘포함(inclusion)’과 ‘살림(living)’의 정치로,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 나아가 환경이 ‘살게 하도록’ 하는 긍정적 정치 장치로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생태관광의 통치가 자발적으로 환경을 돌보고자 하는 주체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생태관광은 긍정적 생명정치의 장치로 기능할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갯벌 전시관이나 갯벌 체험에서 게나 조개 같은 갯벌 생물은 단지 ‘먹거리’만이 아니라 고유한 생태를 지닌 ‘생물학적 존재’이며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내러티브를 통해 전시된다. 갯벌 체험 가이드라인은 관찰을 위해 채집한 생물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줄 것을 권장함으로써, 관광객이 이들 생물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배려하도록 인도한다. 갯벌 관광이 갯벌 생물을 ‘살게 하도록’ 하는 생명정치의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갯벌 생물을 ‘죽게 하는’ 간척의 생명정치와 판이하게 다른 형태로, 생태관광을 통해 긍정적 생명정치를 실천하고 이

론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분석의 축

통치성 분석은 서구 신자유주의의 작동 방식과 정치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주로 활용돼왔다(Lemke 2001; Dean 2010). 생태관광의 통치성 분석 역시 환경 통치와 신자유주의 통치의 결합에 주목하고, 생태관광을 보전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통해 소비자-시민 주체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환경 통치 양식으로 이론화되어왔다. 기존의 분석법에 이어, 필자는 한국 생태관광의 통치성 분석이 생태관광을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변동과 관련지어 사유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본 절에서 두 가지 분석축을 제안한다. 이 분석축들은 한국 생태관광의 특수성을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한국 사회의 경로특수적인 맥락과 관련지어 필자가 도출한 것이다. 한국 생태관광의 출현과 발달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사회적·역사적 맥락(e.g. 식민지 경험, 문화, 종교, 공간 정치)이 존재하며 이들을 활용해 생태관광의 통치성 분석의 새로운 축을 제안, 개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첫 번째 분석의 축은 기존 신자유주의 논의를 확장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Brenner and Theodore, 2002)로서 한국의 생태관광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생태관광은 북반구-남반구의 주류 모델과 달리 국내 공적 영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전을 상품화하고 지역주민을 경제적 이해당사자로 참여시키겠다는 시장의 논리가 생태관광의 계획과 실천에 여전히 지배적인 가치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생태관광이 경제적 이익을 낼 정도로 상업화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은 인건비 지원, 인프라 조성 등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나온다. 경제적 성과는 두드러지지 못하는 한편, 한국 생태관광에서는 ‘소비자-시민’ 외에도 ‘환경 농민’, ‘환경 시민’, ‘느림

의 주체' 등 다양한 환경 주체가 발견된다. 이들 중 일부는 환경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자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의 품행을 친환경적으로 인도하는 '자기 계발의 주체'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치유해준 자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환경을 돌보고 자 하는 '환경 시민', '빠름'에 길들여진 삶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꿈꾸며 '느림'을 실천하는 일부 '느림의 주체'처럼 기존 체제에서의 탈주를 도모하는 환경 주체들도 나타난다. 이처럼 보전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추구하지만 이 같은 통치 이성이 관 주도형 거버넌스와 권력관계를 통해 실천되고 새로운 탈주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생태관광은 전형적 모델과 구별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통치 양식의 작동 방식, 주체 형성, 정치적 합의 등을 탐색하는 것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환경 통치로서의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환경 통치 장치로 생태관광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푸코는 국가를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로 보는 주권국가론의 국가 개념을 거부하고, 국가를 다양한 실천과 전략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로 이해한다(Jessop, 2007). 이때 전략은 반드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인구의 건강 증진 같은)에 의해 중층적으로 작동한다. 푸코의 국가론 관점에서 볼 때, 발전주의 국가나 후기 발전주의 국가는 행정 관료 체제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 전략, 권력관계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진 효과, 또는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효과로서의 국가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끝없는 전략적 보완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시적(contingent)'으로 완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태관광에서 활용되는 전략들—담론, 개입의 기술, 주체의 형태—은 기존 발전주의 국가의 자연 관리에 사용된 전략들과 크게 다르다.」 단순화해 정리하자면, 발전주의 국가의 환경 통치에서 자연은 경제 성장에 복무해야 할 '자원' 또는 극복해야 할 '난관'으로 담론화

되고, 간척이나 포경 같은 살상적(lethal) 방식을 통해 이용됐다(Choi, 2014; Hwang, 2015). 그러나 생태관광에서 자연은 관광 같은 비살상적(non-lethal)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원, 또는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제시된다. 또,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자연 보호 행동을 견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도 달라졌다. 발전주의 환경 통치가 법적 처벌, 벌금 같은 사법 기술이나 규율 기술에 집중했다면, 생태관광의 통치는 이 외에도 조절 및 감응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갯벌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과거에는 법적 처벌을 알리는 경고판을 활용했다면, 최근엔 “뱀으면 생명이 아프다”라는 식의 정서적 안내판을 활용하는 것이 한 예다. 발전주의 국가의 환경 통치가 자연의 경제적 이용을 극대화하는 “발전주의 주체(developmentalist subjects)”를 만들어내고자 했다면(Sonn and Gimm, 2013), 생태관광은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 주체’를 생산해내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생태관광은 자연과 관련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품행을 기존 발전주의 국가의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국가를 다양한 전략의 효과로 보는 푸코주의 국가론에서 볼 때, 생태관광 전략의 효과로 나타나는 국가는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와 어느 정도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크게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생태관광은 발전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반성과 개혁을 도모하는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환경 통치를 위한 생명정치의 장치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초보적인 단계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발전되고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전주의 국가와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담론, 기술, 주체 등은 명백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며, 발전주의 국가체제하에 형성된 제도와 습관이 관성적으로 남아 새로운 제도 및 습관과 경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혼종적 결과물(예를 들어 관 주도의 CBET, ‘느림’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9) 발전주의 국가의 통치성 연구로는 Sonn and Gimm(2013)의 새마을운동 연구가 있다. 이들은 새마을 운동을 ‘발전주의 통치성’의 전략으로 보고, ‘새마을 지도자’라는 반관반민 조직을 통해 발전주의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환경 통치를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분석의 지점들을 제공해줄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녹색통치성 논의를 활용해 한국 생태관광을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다. 필자는 먼저 한국 생태관광의 발달을 계보학적으로 살펴보고, 지리적 스케일과 정치적 구성 측면에서 한국 생태관광의 형태가 북반구-남반구에서 이뤄지는 전형적 모델과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태관광에 대한 주요 사회과학적 접근법 — 이해당사자 이론, 정치생태학적 논의, 녹색통치성 논의 — 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녹색통치성 논의가 한국 생태관광 분석에 갖는 유용성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개념, 분석의 차원, 분석의 축을 차례로 살펴봤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 생태관광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의 한 형태이자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환경 통치의 장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유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맥락의존적인 생태관광 분석에서 녹색통치성 논의가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통치성 논의는 생태관광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관리 전략의 작동 방식과 정치적 성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후기 발전주의 국가의 환경 통치라는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신자유주의적 환경 통치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은 환경 관리 장치를 연구하는 데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 길고양이 관리 전략을 예로 들자면, 과거 포획 및 중성화 수술에서 최근 캣맘을 활용한 급식소 설치 등으로 관리 방법이 확장됐다(이종찬, 2015). 이 같은 통치 전략의 변화는 생명정치 측면에서는 동물의 번식할 권리를 빼앗는 죽음의 정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돌보는 살림의 정치로의 변화를 시사한다(전의령, 2014). 동시에, 국가가 맡았던 도심 유해동물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캣맘이라는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통치성 논의를 활용해 한국 사례를 분석할 때 기존의 분석법과 도구를 적극적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푸코와 통치성 연구자들의 논의는 서유럽의 경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배경이 다른 비유럽 사회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이승철, 2014). 푸코 자신이 권고했듯, 현재의 통치성 이론을 “누군가 미리 밟아 놓은 길(trails to be followed)”(Foucault, 1980b: 78) 정도로 여기고, 새로운 이론과 사례 연구를 결합시켜 개조, 발전시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 주도에 의한 급속한 근대화’라는 경험은 서구 사회의 근대화 궤적과는 크게 다르면서,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에 공통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관 주도형 거버넌스, 전근대·근대·탈근대적 가치의 공존, 급속한 시공간의 압축 등 압축적 근대화(Chang, 2010)의 경험이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통치의 이성과 전략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본 논문은 본격적인 생태관광, 나아가 환경 통치성 연구를 위해 주요 이론, 개념, 분석의 도구를 제공하는 시론적 연구다.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 보건 등에 집중된 국내 통치성 연구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맥락특수적인 통치성 논의를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접수일: 2016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9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12월 11일

❖ Abstract

Green governmentality approaches to the study of ecotourism
in South Korea

Choi, Myung Ae

In South Korea, ecotourism is now considered as a useful policy instrument that can deliver both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However, critical approaches to ecotourism have yet been scarce in South Korean social science scholarship.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is gap by offering green governmentality as a way of examining environmental politics of ecotourism in South Korea. Drawing on Foucault's innovative understandings of power and government, Foucauldian social scientists have theorized environmental practices, such as ecotourism, as 'a form of governing'—i.e. governmentality—, which shapes particular ways of thinking about and relating to nature. This paper is in a three-fold. It first traces the genealogy of ecotourism development in South Korea, identifying its unorthodox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ational scale and the leadership of the state. It then reviews key social science approaches to ecotourism and considers their utilities to study the unorthodox aspects of South Korean ecotourism. Focusing on green governmentality, the paper examines its key concepts, analytical tools and axes with a view of offering an analytical template to deploy this approach in the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cases. From the green governmentality perspective, ecotourism in South Korea can be viewed as a form of green governmentality of a post-developmental state as well as of a mode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In this regard, this paper argues that green governmentality has methodological utility for path-dependent analyses of South Korean ecotourism.

Keywords: ecotourism, green governmentality, biopolitics, the developmental state, Foucault

참고문헌

- 강미희. 1999. 『생태관광객의 여행 동기 및 태도: 척도구축과 관광객유형별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성일·박석희. 2001.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 김환석. 2013. 『생명정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와사회》봄호, 13~38쪽.
- _____. 2015. 『한국의 생명정치와 우울증: 예비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27권 2호, 289~313쪽.
- 문화관광부. 2015. 문화체육관광 통계포털
<http://culturestat.mcst.go.kr/StatisticsPortal/McstPortal/index.jsp>.
- 박배균. 2006.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 《공간과 사회》 25호, 8~40쪽.
- 서동진. 2009a.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57호, 315~335쪽.
- _____. 2009b.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 심성보·유진·이규원·이승철·전의령·최영찬·윽김. 2014.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 심숙경. 1995. 『환경과 지역 경제 조화 시키는 생태관광』. 《환경운동》 27호, 77~81쪽.
- 엄은희. 2016. 『동남아 농촌마을의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CBET)』.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권 2호, 242~264쪽.
- 오정준. 2003.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권 4호, 610~629쪽.
- 유영준·이성각. 2016.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울산 태화강 활용 방안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권 1호, 71~83쪽.
- 이광희·변재진. 1992. 『환경보전과 생태관광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교통정보》 68호, 44~60쪽.
- 이승철. 2014. 『윽김이 후기: 새로운(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 심성보 외 윽김. 『푸코 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난장. 451~465쪽.
- 이재혁·이희연. 2012.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7권 6호, 853~869쪽.
- 이종찬. 2015.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해 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과 공존의 정치』.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의령. 2014. 『도둑고양이에서 길고양이로: 동물복지의 등장과 돌봄의 공간으로서의 골목』. 포스텍 인문기술융합연구소 <공간> 학술대회 발표문. 2014.1.17.

- 정현주. 2006. 「특집논문: 제주의 섬 경제와 미래 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권 3호, 57~68쪽.
- 조광익. 2005. 「근대 권력 장치로서의 여가와 관광」. 《관광레저연구》 17권 2호, 97~116쪽.
- 조중현·김용근. 2014. 「생태관광의 새로운 해석과 비전」. 《관광연구저널》 28권 1호, 131~144쪽.
- 진태원. 2012. 「푸코와 민주주의: 바깥의 정치, 신자유주의, 대항품행」. 《철학논집》 29호, 153~188쪽.
- 최명애. 2016. 「울산 장생포 고래 관광의 위상학적 공간 분석」. 『대한지리학회 2016년 지리학대회 발표 논문 요약집』, 49쪽.
- 최병두. 2015. 「단보: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공간과 사회》 53호, 173~192쪽.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정수. 2003. 「단보: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권 1호, 233~247쪽.
- 황진태·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48권 3호, 348~365쪽.
- Adams W. and Mulligan M. 2012. *Decolonizing nature: Strategies for conservation in a post-colonial era*. London: Earthscan.
- Adey P. 2008. "Airports, mobility and the calculative architecture of affective control." *Geoforum* 39(1), pp. 438~451.
- Agamben G.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Agrawal A. 2005a. *Environmentality: Technologies of government and the making of subject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05b. "Environmentality: Community, intimate government, and the making of environmental subjects in Kumaon, India." *Current Anthropology* 46(2), pp. 161~190.
- Anderson B. 2009. "Affective atmospheres." *Emotion, Space and Society* 2(2), pp. 77~81.
- _____. 2012. "Affect and biopower: Towards a politics of lif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7(1), pp. 28~43.
- Bäckstrand K. and Löwbrand E. 2006. "Planting trees to mitigate climate change: Contested discourses of ecological modernization, green governmentality and civic environmentalism."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6(1), pp. 50~75.

- Blamey R. K. 2001. "Principles of ecotourism." in D. Weaver(ed). *The encyclopedia of ecotourism*. Wallingford: CABI Publishing, pp. 5~22.
- Brenner N. and Theodore N.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Antipode* 34(3), pp. 349~379.
- Brockington D. and Duffy R. 2011. *Capitalism and conservation*. Chichester: Wiley-Blackwell.
- Buckley R., Cater C., Linsheng Z. et al. 2008. "Shengtai luyou: Cross-cultural comparison in eco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5(4), pp. 945~968.
- Büscher B. and Davidov V. 2014. *The ecotourism-extraction nexus: Political economies and rural realities of(un)comfortable bedfellows*. Oxford, New York: Routledge.
- Butcher J. 2007. *Ecotourism, NGOs and development: A critical analysis*. Abingdon: Routledge.
- Carter S. and McCormack D. P. 2006. "Film, geopolitics and the affective logics of intervention." *Political Geography* 25(2), pp. 228~245.
- Castree N. 2008a. "Neoliberalising nature: Processes, effects, and evalu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pp. 153~173.
- _____. 2008b. "Neoliberalising nature: The logics of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0(1), pp. 131~152.
- Cater C. and Cloke P. 2007. "Bodies in action." *Anthropology Today* 23(6), pp. 13~16.
- Cater E. 2006. "Ecotourism as a Western construct." *Journal of Ecotourism* 5(12), pp. 23~39.
- Ceballos-Lascrain H. 1996. *Tourism, ecotourism, and protected areas: The state of nature-based tourism around the world and guidelines for its development*. Gland; Cambridge: IUCN European Commission.
- Cepik M. L. 2011. "Foucault in the forest: Questioning environmentality in Amazonia." *American Ethnologist* 38(3), pp. 501~515.
- Chang H-J. 1998. "Korea: The misunderstood crisis" *World Development* 26(8), pp. 1555~1561.
- Chang K-S. 2010.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Abingdon: Routledge.
- Child B. 1996. "The practice and principles of community-based wildlife management in Zimbabwe: The campfire programme." *Biodiversity & Conservation* 5(3), pp. 369~398.
- Choi Y-R. 2014.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Reclamation of Korean tidal flats, 1950s~2000s." *Ocean & Coastal Management* 102, pp. 426~436.
- Cloke P. and Perkins H. C. 1998. "'Cracking the canyon with the awesome foursome': Representations of adventure tourism in New Zealand."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 Space* 16(2), pp. 185~218.

- Dean M. 2010.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2nd edn). London: Sage.
- Doucette J. 2009. *The post-developmental state: The reconfiguration of political space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South Korea*. PhD thesis,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Dressler W. 2014. "Green governmentality and swidden decline on Palawan islan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9(2), pp. 250~264.
- Duffy R. 2002. *A trip too far: Ecotourism, politics, and exploitation*. London: Earthscan.
- _____. 2008. "Neoliberalising nature: Global networks and ecotourism development in Madagascar."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6(3), pp. 327~344.
- Duffy R. and Moore L. 2010. "Neoliberalising nature? Elephant-back tourism in Thailand and Botswana." *Antipode* 42(3), pp. 742~766.
- Fennell D. A. 2015. *Ecotourism: An introduction*(4th edn). Abingdon: Routledge.
- Fletcher R. 2009. "Ecotourism discourse: Challenging the stakeholders theory" *Journal of Ecotourism* 8(3), pp. 269~285.
- _____. 2014. *Romancing the wild: Cultural dimensions of ecotour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1978.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I*. New York: Vintage.
- _____. 1980a. "The confession of the flesh." in C. Gordon(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pp. 194~228.
- _____. 1980b. "Two lectures." in C. Gordon(ed)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New York: Pantheon, pp 78~108.
- _____. 2000. "Technologies of the self." in J. D. Faubion(ed).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the essential works of Michael Foucault 1954~1984*. London: Penguin Books,pp. 223~251.
- _____.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1976*. New York: Picador.
- _____. 2009.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1978*. Basingtoke: Palgrave Macmillan.
- Gordon C. 1991.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G. Burchell, M. Foucault, C. Gordon and P. Miller(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51.
- Hannah M. G. 2011. "Biopower, life and left politics." *Antipode* 43(4), pp. 1034~1055.
- Honey M. 2008. *Eco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o owns paradise?*. Washington DC: Island Press.
- Hwang J-T. 2015. "A study of statenature relations in a developmental state: The water

- resource policy of the Park Jung-Hee regime, 1961~79.” *Environment and Planning A* 47(9), pp. 1926~1943.
- Jessop B. 2005. “A regulationist and state-theoretical analysis.” in R. Boyd and T. W. Ngo(eds.). *Asian states: Beyond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Abingdon: Routledge, pp. 19~29.
- _____. 2007. *State power*. Oxford: Polity.
- Jun E-R. 2011. *Virtuous citizens and sentimental society: Ethics and politics in neoliberal South Korea*. PhD thesis,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Kerstetter D. L., Hou J-S. and Lin C-H. 2004. “Profiling Taiwanese ecotourists using a behavioral approach.” *Tourism Management* 25(4), pp. 491~498.
- Kim D-C. 2006. “Growth and crisis of the Korean citizen’s movement.” *Korea Journal*(Summer), pp. 99~128.
- Kiss A. 2004. “Is community-based ecotourism a good us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funds?”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 19(5), pp.232~237.
- Ku D-W. 2009. “The emergence of ecological alternative movement in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36(2), pp. 1~32.
- Lane B. 1994. “What is rural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1~2), pp. 7~21.
- Lee Y-S., Lawton L. J. and Weaver D. B. 2013. “Evidence for a South Korean model of eco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52(4), pp. 520~533.
- Legg S. 2005. “Foucault’s population geographies: Classifications, biopolitics and governmental spac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1(3), pp. 137~156.
- _____. 2008. *Spaces of colonialism: Delhi’s urban governmental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Lemke T.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 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è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2), pp. 190~207.
- _____. 2011. *Biopolitics: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Li T. M. 2007. *The will to improve: Governmentality, development, and the practice of politic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Lorimer J. 2010. “International conservation ‘volunteering’ and the geographies of global environmental citizenship.” *Political Geography* 29(6), pp. 311~322.
- Lorimer J. and Driessen C. 2013. “Bovine biopolitics and the promise of monsters in the rewilding of heck cattle.” *Geoforum* 48, pp. 249~259.
- Lovell H., Bulkeley H. and Liverman D. 2009. “Carbon offsetting: Sustaining consump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41(10), pp. 2357~2379.
- Luke T. 1999. “Environmentality as green governmentality.” in Darier(ed). *Discourses of*

- the environment*. Oxford: Blackwell, pp. 121~151.
- Mbaiwa J. E. 2003. "Th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on the Okavango delta, North-Western Botswana." *Journal of Arid Environments* 54(2), pp. 447~467.
- McCarthy J. and Prudham S. 2004. "Neoliberal nature and the nature of neoliberalism." *Geoforum* 35(3), pp. 275~283.
- McCormack D. P. 2015. "Governing inflation: Price and atmospheres of emergency." *Theory, Culture & Society* 32(2), pp. 131~154.
- Mitchell T. 2002. *Rule of experts: Egypt, techno-politics, moder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owforth M. and Munt I. 2008. *Tourism and sustainability: Development, globalisation and new tourism in the Third world*. Abingdon: Routledge.
- Oels A. 2005. "Rendering climate change governable: From biopower to advanced liberal govern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7(3), pp. 185~207.
- Philo C. 2012. "A 'new Foucault' with lively implications or 'the crawfish advances sideway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7(4), pp. 496~514.
- Pile S. 2010. "Emotions and affect in recent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1), pp. 5~20.
- Pirie I. 2007.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From dirigisme to neo-liberalism*. Abingdon: Routledge.
- Rabinow P. and Rose N. 2006. "Biopower today." *BioSocieties* 1(2), pp. 195~217.
- Rose N. 1996. *Inventing ourselves: Psychiatry power and person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The politics of life itself: Biomedicine, power, and subjectiv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 N., O'Malley P. and Valverde M. 2006. "Governmentality."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2, pp. 83~104.
- Rutherford P. and Rutherford S. 2013. "The confusions and exuberances of biopolitics." *Geography Compass* 7(6), pp. 412~422.
- Rutherford S. 2007. "Green governmentality: Insights and opportunities in the study of nature's ru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3), pp. 291~307.
- _____. 2011. *Governing the wild: Ecotours of power*.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cheyvens R. 1999. "Ecotourism and the empowerment of local communities." *Tourism Management* 20(2), pp. 245~249.
- Scott J. C. 1998.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ong J. 2009. *South Koreans in the debt crisis: The creation of a neoliberal welfare socie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Sonn J-W. and Gimm D-W. 2013. "South Korea's Saemaul(new village) Movement: An organisational technology for the production of developmentalist subjects."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Revue Canadienne D'udes du Developpement* 34(1), pp. 22~36.
- Srinivasan K. 2014. "Caring for the collective: Biopower and agential subjectification in wildlife conserv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 Space* 32(3) pp. 501~517.
- Thrift N.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86(1), pp. 57~78.
- Tsing A. L. 2005. *Friction: An ethnography of global conne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ivanco L. and Gordon R. 2006. *Tarzan was an eco-tourist: ...And other tales in the anthropology of adventure*. Oxford: Berghahn Books.
- Wearing S. and Neil J. 2009. *Ecotourism: Impacts, potentials and possibilities?*. Abingdon: Routledge.
- Weaver D. 2002. "Asian ecotourism: Patterns and themes." *Tourism Geographies* 4(2), pp. 153~172.
- Weaver D. B. and Lawton L. J. 2007. "Twenty years on: The state of contemporary ecotourism research." *Tourism Management* 28(5), pp. 1168~1179.
- Wen Y. and Ximing X. 2008. "The differences in ecotourism between China and the West." *Current Issues in Tourism* 11(6), pp. 567~586.
- West P. 2006. *Conservation is our government now: The politics of ecology in Papua New Guine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Tourism as science and science as tourism: Environment, society, self, and other in Papua New Guinea [with comments]." *Current Anthropology* 49(4), pp. 597~626.